20150503.md 5/20/2019

20190503

세미나 내용 정리

세미나 정보

• AWSKRUG 경력개발 소모임 - '관리자가 되기 싫은 개발자를 위한 조언' (4월 30일)

• 일시: 2019.04.30 화요일 오후 7시 ~ 오후 9시

• 발표자 : 윤석찬 (AWS 테크에반젤리스트)

세미나 내용 (서론)

1. writing

- ㅇ 코드를 잘 짜는 사람은 글을 잘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.
 - 코드를 비즈니스 로직에 맞춰서 쓰기 때문이다.
 - 프로그래머 능력 + writing + 공유
- o 아마존에서는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는다. 글을 써서 공유를 한다고 한다. (6페이지 안에 논문형식으로, appendix만해도 30~40장이나)
 - writing이 중요하다. writing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꼭 아마존에 지원하길...
 - 도전 가치가 있다.

2. 테크에반젤리스트?

- o 외국계에는 해당 직업이 많다.
- 기술을 전도하고, 일정 규모 이상의 협력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.
- o 합리적인 코드를 만들어내고, 안내를 한다.
- 한 사람이(한 명이 일당 백) 다수에게 Mess Media가 되는 것이다.
-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이 에반젤리즘을 만들어냈다. (애플빠)
- o 닷넷, 자바, 웹 API, 에반젤리즘, 광고 product
- o 에반젤리즘이라는 단어가 중동에서는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'developer advocate'라고 명칭을 부르기도 한다.
- o 개발자를 대변하는 중반자 역할이다. (developer relation)
- o 사내 문화를 외부에 공유하기도 한다.
- 기술적인 것을 외부에 공유함으로써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되기도한다.
- 배우게 하고, 사용하게 하는 것이 에반젤리스트의 역할 이다.(몇 명에게 기술적인 impact를 주고 몇 명이 다시 해보고 그 다음에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.) *developer advocate 참고 링크1 -*

https://medium.com/@ashleymcnamara/what-is-developer-advocacy-3a92442b627c developer advocate 참고 링크2 - https://medium.freecodecamp.org/how-to-become-a-developer-advocate-my-story-and-some-practical-tips-bfb27552657e

3. 오늘 면접자를 만난 ...

- o 회사에만 있으면 밖의 일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. (큰 회사일 수록 더욱더)
- o 면접을 본 사람이 basic requirement에 대해 한번도 안해본 사람이 지원을 했다.(ex, AWS에서 제공하는 툴에 대해서 설치 같은 것도 안해봄)
- o 잘 쓰는건 상관이 없다.

20150503.md 5/20/2019

세미나 내용 (본론) - 경력 관리를 잘하려면

- 1. 링크드인에 최신 정보로 이력서를 관리하라
 - o 회사에서 팀장으로 있을 대 회사를 옮긴다고 생각하고 연말에 인사 평가 때 이력서를 작성하여 내라고 했었다.
 - o 링크드인에 작성을 하라.
 - ㅇ 링크드인에 없으면 경력은 더이상 존재 하지 않는다.
 - ㅇ 우리가 알리고, 회사가 보는 시대이다.
 - o 한국 HR 담당자가 링크드인에서 많이 본다.
 - o 외국 기업은 아주 기본이다.
- 2. Work-work 균형이 중요하다.
 - 스토리가 있는 경력이 될 수 있다.
 - o 나의 가족, 저녁이 있는 삶 그런 것들이 좋다.
 - 재미있는 부업거리 찾기 -> 개발자로서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, 오픈소스에 참여한다거나처럼 재미 있는 것을 부업으로 한다.
- 3. 커뮤니티에서 일부의 인맥을 만들어라.
 - 커뮤니티에는 의지, 동기가 있는 사람이 모여 있다.
 - 개발자 커뮤니티는 샘물과 같은 곳이다. 세심히 키우고 소통하라.
 - o 커뮤니티는 오래간다.
 - o 주변 기술을 알 수 있고, 새로운 기회가 많다. (흥미가 있을 만한 커뮤니티)
- 4. 해외 컨퍼런스에 주기적으로 참석하라.
 - o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려면 참석하는 것이 좋다.
 - o 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다.
 - 돈을 내거나, 지원을 받거나, 출장을 가거나
- 5. 공유는 항상 옳다.
 - o 기술적 영향력을 얻고 싶다면!!
 - o 기술적인 영향력은 개인에게 장점이 되고, 하는 일을 열심히하고, 공유를 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.
 - 쓰고, 찍고, 정리하고 배워서 남주자. (번역: writing, 하루에 한 두개 도 좋다.)
 - 기술적인 영향력을 줄 때 아는 것을 정리하는게 좋다.
 - ㅇ 주간 소식 모음 : 긁고 검색, 좋은 글 링클르 건다.
 - o Tip 이렇게 했는데 좋더라와 같은 것
 - o 블로그를 하면 희소 가치가 있다.
- 6. 승진의 유혹에 올라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.
 - 나이를 먹어서도 즐겁게 개발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행운이다.
 - 욕심을 버리고, 새로운 일을 하는 one man player가 좋다.
 - ㅇ 빨리 올라가면, 빨리 내려온다. 따라서 꾸준히 내 일을 잘하는 것이 좋다.
 - 나이가 들어도 핸즈온이 필수다.(핸즈온 :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)
 - o 손발이 없어 일 못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.
 - o 가희동집사 빈센트 스페셜을 꼭 보라. 영감을 받을 수 있다. 하는 일에 있어서 나이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 - o 개발을 놓지말자!

20150503.md 5/20/2019

7. 이직? 경력?

- o IT쪽은 이직 짧은게 많다. 외국일 수록 주기가 더 짧다.
- o 외국 회사의 경우 이직 횟수가 많고, 근속 년수가 작은 것도 있다.
- o 한국의 임금 체계와 외국의 임금 체계가 다르다.
 - 오라클의 경우 급여 싸인 3-4년동안 동일하고, 연봉 협상이 없다.
 - 같은 돈이 4년 plan이고. 기본이다. 그래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.
 - 외국 회사에서 이 연봉이 10년 해도 상관없다면 ... 이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.
 - 성과가 곧 고과로 들어간다.
 - 한국 회사의 경우 물가 상승률 만큼 연봉은 오르긴한다.
 - 세금, 렌트비, 주마다, 도시마다 연봉이 다르다.
 - 밴쿠버 오피스가 뜨는 중(살기 좋은 도시이며 트럼프의 영향도 있다고 한다.)
- o 한국은 그래도 외국보다 좋다.
- o 외국 회사는 급여 문제만 아니면 오래있어도 상관이 없다.
- o 회사를 옮긴다면 어떤 이유?
 - 퇴사할 때 회사에서 안잡아준다.(만약 말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들어야할 수도 있다. 하지만 대체적으로 안듣고 나가긴한다. 왜냐하면 퇴사자는 나가는 마음을 먹었을 때 무언의 신호를 그 전에 계속 보낸다. 팀장은 그것을 잘 캐치하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.)
 - 사람이 중요하다.
 - 큰 폭으로 연봉 상승 (이직 시 상상도 못할 연봉을 불러라, 예를 들자면 50%? 도전적인 만큼 그 만큼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.)
 - 시장가격을 높였을 때 충분하면 뽑아준다.

8. 어떤 조직이 좋은 조직?

- ㅇ 공부를 하는 팀
 - 온전히 8시간에 일을 하는 시간으로 두지 않고 버퍼를 일부든다. (공부10%를 채우도록 한다.)
 - 세미나, 사내 컨퍼런스도 운영하는 조직
 - 공부를 하는 시간마저도 팀장이 버퍼를 쳐준다.
 - 1명 MM을 전체를 돌린다.

9. 외국계 회사 - 영어?

- ㅇ 영어는 중요하지 않다.
- o 못해도 follow up을 잘해주자.(follow : 리모트 콜, chat)
- o 일하는데 영향을 주진 않는다.
- 인터뷰는 영어다.
- ㅇ 영어를 안해도 화이트 보드에 코딩을 한다.
- 화이트보드에 코딩할 때 중요한건 푸는거, 답을 찾는 것이 아니다.
- o 어떻게 deep dive하는지를 보기도한다. 아는 것을 다 넣어라.(문제에 그냥 deep dive) remote call: 태도 중 요. 빨리쓰는 연습, stackoverflow에 답변을 많이 달아보는 연습을 하거나 깃헙 관심프로젝트에 이슈트레커가 되어 번역기를 쓰든 해서 답변을 꾸준히 하는 연습을 하라
- o 인터뷰 경험 에피소드를 6개 스토리를 만들어 놓는데, 자신의 얘기를 중요한 단어를 나열을 해둔다.(하지만 연습은 필요하다!)